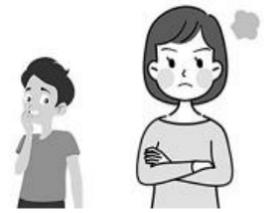


버릇



엄마들은 아이가 뭔가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게 행여나 평생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고 단속을 하게 된다. 눈 깜박거리지 마, 손톱 물어뜯지 마, 입술 뜯지 마, 다리 떨지 마, 똑바로 걸어 등등 심지어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만 생겨난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엄마 눈에는 내 자녀의 나쁜 버릇들이 유독 눈에 잘 띄는 것 같다.

한때 나는 아들의 걸음걸이에 꽃혀서 운동화 밑창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며 한참 동안 들여다보곤 했었다. 미세하게 안쪽만 더 많이 닳아 있는 것 같아서 아이가 안짱다리라도 되면 어쩌나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릴 때 엄마가 사람은 자세와 걸음걸이가 중요하다고 귀에 못이 박이게 말한 게 자꾸만 생각나서 더욱 걱정스러웠다. 멀쩡하게 잘 걷는 아이를 보면서 도 뭔가 크게 잘못될 것만 같은 불안감을 느끼다니 별일 아닌 것으로 참 유난을 떨었구나 싶다.

우리집 아이들은 어릴 때 모두 손가락을 빨았다. 특이하게도 엄지가 아닌 검지를 빨았고 둘째는 신기하게 검지와 중지 두 개를 동시에 빨았다. 신생아 때는 출산한 병원에서 준 공갈젓꼭지를 물려줘보기도 했지만 자기 손가락만큼 좋아하진 않았다. 쪽쪽 빨다가 공갈젓꼭지가 입에서 쏙 빠져버리면 스스로 다시 입에 넣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트리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달랐다. 누워있는 채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아이가 손가락만큼은 잘도 빨았다. 애 넷 모두 내가 옆에 끼고 재우지 않고 수면훈련을 하여 혼자 재웠기 때문에 손가락 빨기는 자기 나름대로 엄마 없이 잠들기 전에 자신을 위로하고 진정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다. 아이 손가락에 굳은

살을 보면서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지만 굳이 못하게 막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아이가 슬슬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손가락을 빨지 말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2년 정도 지속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그만둔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일이었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며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에게 이가 심하게 튀어나온 빠드렁니 사진들을 들이밀며 “너희가 손가락 빨기를 멈추지 않으면 결국 치아가 이렇게 되고 말 것” 이라고 겁을 주었다. 아직 영유아였던 아이들에게 이 협박은 생각보다 잘 통했다. 아이들은 제법 놀란 얼굴을 하더니 정말 그 무렵부터 점차 손을 빼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가락 굳은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셋째는 지금까지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다. TV를 시청하거나 뭔가 멍하니 있거나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이 입을 향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였다. 몇 년 전까지는 뭐든지 물어뜯거나 씹는 것을 좋아해서 셋째의 물건에는 유난히 이빨자국이 많았다.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은 정서적 불안감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니 셋째의 그런 행동은 더더욱 눈에 거슬렀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그랬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긴 했지만 잠못에 달려있는 리본 끈을 질경질경 씹고 쪽쪽 팔곤 했었다. 그 끈에서 나는 약간 비릿한 냄새마저 좋아해서 코를 킁킁 거리며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연필꼭지나 인형 다리를 깨

무는 것도 좋아했었지만 지금은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씹고 싶지 않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나쁜 버릇은 일찌감치 고치고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고들 말한다. 안 그러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마치 인생 말아먹기라도 할 것처럼 겁을 주면서 말이다. 그런데 나쁜 버릇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타격감이 사람들이 겁내는 것에 비해 너무 미비한 수준이다. 집중할 때 손톱을 깨물거나 초조할 때 다리를 떠는 어른을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다들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도 그럴 듯이 그들이 하루 종일 손톱을 물어뜯거나 할 일도 안 하면서 다리를 떨고 있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정서적 불안감을 꺾고 속으로 삭이고 삼키기보다는 그렇게 소소하게라도 표출하고 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게 더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강을 해치는 것만 아니라면 나쁜 버릇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손톱을 물어뜯는다면 나는 또 하지 말라고 말하고 말 것 같다. 그렇지 뭐... 인생은 늘 이렇게 굴러가는 거니까.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1.5세 이주민'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무엇이든 맡겨 주십시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드림포올 프로그램 자격조건 (Borrower Requirements)

- First Time Home Buyer:**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분 / 최근 3년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으신 분
- Maximum Income Limit:** 용자 받는 사람의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Orange County (\$235,000) / LA County (\$180,000) / 기타지역 (확인하기)**
- Minimum Credit: 680** 최소 크레딧 점수가 6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All borrowers must occupy the property as the primary residence.** 용자 받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구매 완료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매한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co-borrowers 혹은 co-signers는 불가능합니다.
- 주택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CalHFA에서 요구하는 홈바이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첫 주택 다운페이 20%
까지 정부 무이자 대출 보조금 지원 중

지금 전화주세요! > 아이비 949.501.8555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